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14살 인생 멘토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 낸 사람들의 인생 보고서’라는 책의 부제는 조금 묵직한 첫 인상을 준다. 그러나 노란색의 화사한 책 표지가 그 묵직함을 좀 덜어주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책을 펼친 순간, 인물들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마치 시집처럼 여유로운 글자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부담 없이 읽기 시작한 책인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생각이 자꾸만 많아진다.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이없이 제기하면서 자기보다는 남을,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기존의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대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자기만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이 책을 쓴 저자의 바람이다. 사람의 외면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기를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그저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 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엄마가 되어있다고나 할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아



꿈 꿀 수 있다면 나이가 대수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에릭 호퍼, 이찬형(효봉 스님), 레이철 카슨, 장준하, 유일환, 무하마드 알리, 유영모, 존 로빈슨, 공병우, 권정생, 노년 배운, 채규철 등이 그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판사 이찬형은 독립만세를 외친 독립투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만 했다. 그 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3년을 떠돌았다. 그리고 서른여덟,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정진을 거듭해 조계종의 초대 종정 효봉 스님으로 거듭나게 됐다.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곧 인간이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인생에 대해 생각이 커지는 14세

가 나를 되돌아보면 문득 우울한 자화상에 멍청하는 순간이 있다. 14세 청소년만 멘토를 찾을 일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그 누구라도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보통의 엄마들도 말이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14살 인생 멘토 | 김보일 지음 · 박윤환 그림 | 북멘토 펴냄 | 1만 2000원

김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 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천년고찰, 그 안의 역사를 읽다

한국에서 불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송유역불정착을 쫓던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다. 사찰은 역사적 유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 절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는 우리 국토의 명산 승지마다 반드시 만나는 천년고찰 27곳을 순례하고 사찰의 유래부터 역사적 사실, 가람배치, 각 건물들의 의미 등 사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엮은 책이다. 저자 이호일씨는 △삼보사찰(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5대 적멸보궁(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정암사, 법흥사) △3대 관음성지(낙산사, 보문사, 보리암)를 비롯한 명찰기행을 통해 각 사찰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또한 명승지마다 자리한 고찰이 불교문화의 보고가 되기까지 그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 절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 | 이호일 지음 | 가람기획 펴냄 | 1만5000원

행복하고 싶다면 부처께 물어라

법륜 스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용맹정진 이어 순회강연

한국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다. 도무지 평화의 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남북 관계를 비롯해 정부는 시민·종교단체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교육·노사·빈곤·지역갈등문제 등 무수한 사회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모든 것이 발전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돼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설, 흑한 등이 삶을 덮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청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따끔하게 충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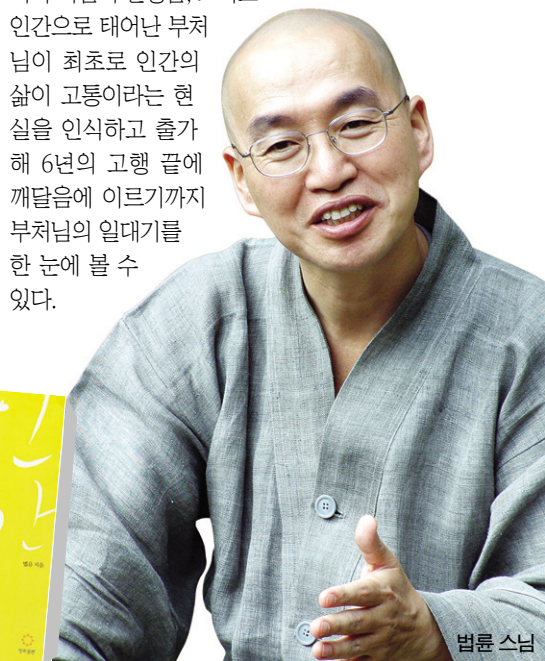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은 그 해답을 부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2010년 지금,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해답이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에 담겨있다.

책은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숭배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책은 부처님을 신성의 영역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신화와 역사의 세계를 넘어 현대 사회의 수많은 모순과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살아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자 법륜 스님은 “인도에서 살아 가신 한 성인의 일대기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함도,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분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불교에 문외한인 초보자들에게도 유익하다.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의 자연환경과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최초로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가해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법륜 스님

책은 △부처님이 오신 나라, 인도의 사상과 역사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 △위대한 출가, 왕궁을 떠나 중생 속으로 △고행과 성도의 4계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방광대장엄경> <불본행집경> 등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부분을 발췌해 스님이 해설하고 부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 화두를 던져주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스님은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삶은 사실적이고 역동적이었다. 이 책에서 2600여 년 전 역사속의 부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혜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회를 설립한 저자 법륜 스님은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다. 스님은 2000년 만해대상 포교상,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마사이사상(평화와 국제이해부문)을 받았다. 스님의 저서로는 <행복한 출근길> <날마다 웃는 집>과 죽문죽설 시리즈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등 다수가 있다.

한편 스님은 출간을 기념해 3월 22~31일 부처님의 출가 일에서 열반일까지 ‘출가용맹정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이라는 내용으로 4월 3일~5월 9일 전국 20여 곳에서 순회강연을 가질 계획이다. (02)587-8994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500원

이아은 기자

늙어 후회 말고 당장 용단을 내라

김광식 교수, 이 시대 다시 만난 한용운 스님 조명해

만해는 왜 스님이 됐을까? 만해는 어릴 적부터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남달랐지만 인생의 근원에 대한 갈증이 늘 따랐던 것 같다.

만해는 소년 시절부터 역사에 빛나는 위인들의 기개와 사상을 흠모했다. 만해가 18세에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을 가던 길이었다. 문득 유년시절 고전에서 봤던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떠올랐다. 덧없는 인생을 바로 알고자 했던 불같은 마음은 그를 백담사에서 이끌었다. 만해의 40년 출가생활이 강원도 백담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만해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제2부에서는 만해와 박한영, 김경봉, 이춘성, 효당, 강석주, 조지훈 등과의 인연을 그려냈다. 제3부는 만해의 울골은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를 소개했다.

책을 통해 만난 만해는 그야말로 대장부다. 그는 독립 운동가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이라도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용감하게 행하자’고 말했다. 만해의 남다른 나라·민족 사랑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만해는 의지를 실천해 온 열정적 인물이었지만 ‘가지 않은

길’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으나. 1929년 6월 <별건곤> 잡지에서 ‘나에게 만약 청춘이 다시 온다면’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청춘이라면 전문분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한 것이 그 예이다.

“내가 오늘날 과거를 회고하니 어떤 학문이든지 한 골수로 돌진해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사회발전에 일조했기를 절실히 감동한다. 그러한즉 금일 청년들은 나처럼 나 이 들고 기력이 쇠진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일대 각오와 용단을 내리라 충고하고 싶다.”

만해의 시대에서 강산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다. 세상은 시끄럽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나태한 정신을 다잡을 때라고 느끼고 있다면, 만해 스님의 애정 담긴 호통 한마디 들어 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만난 한용운 | 김광식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5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보경스님의 『화엄경』 「약찬계」 강설

“소원을 말해봐!”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간절한 소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만나 깨달아 가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정진하면 이를 수 있습니다.

허공은 헤아려도 마음의 체는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크다. 바닷물은 다 마실지라도 범문은 다함이 없으므로 바르다. 이 세계를 가루로 부순 숫자는 헤아려도 묘한 작용은 헤아릴 수 없다. 깨달음도 떠난 깨달음으로 만법의 그윽한 곳까지 다 비치고, 만행의 향기를 피고 모든 덕이 영화롭게 빛나고, 원만한 행과 덕으로 심신을 장식하고, 현묘한 곳까지 꿰어 빛나는 진리의 묘체를 형성한다.



보경스님 지음 | 296면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거리 1020호 ☎730-2500 불교시대사

마음을 깨울 소중한 부처님 말씀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소중한 부처님 말씀 300가지

사공을 뛰어넘어 가장 원형적이고 생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함부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2,600년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총서성 위음 | 560면 | 값 25,000원